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2024. 11. 1. (금) 14:00 - 16:00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발제 | 김진각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정적 위기와 재원 안정화 전략"

| 좌장 | 최병서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 토론 |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김　진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종미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훈 김성훈 댄스 프로젝트 대표, 안무가

주최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 박대출 국회의원

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CONTENTS

인사말과 축사 01

- **개회사**
  - 김승수 국회의원
  - 박대출 국회의원
- **환영사**
  -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 **축사**
  -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발제 17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정적 위기와 재원 안정화 전략**
  - 김진각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토론 33

- **좌　장 :** 최병서(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 **토론자 :** 김우철(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김　진(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종미(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훈(김성훈 댄스 프로젝트 대표, 안무가)

인사말과 축사

개회사



김 승 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김승수 의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화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금 안정화 제도를 마련하고자,
오늘 「문화예술진흥기금재원 안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해주신 박대출 의원님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정적 위기와 재원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주신
김진각 교수님을 비롯한, 토론에 참여해 주신 김우철 교수님, 김 진 교수님, 박종미 교수님,
김성훈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최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는 독창적인 매력과 이야기를 통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K-문화 전반이 더이상 변방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처음부터 세계를 매료시켰던 것은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걱정 없이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함께 든든한 기둥을 자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1973년, 1인당 국민소득이 401달러에 불과했던 시절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50년간 무려 4조 3,232억 원을 마련하며 우리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핵심 재원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문화 컨텐츠가 전 세계적인 광풍을 일으키는 동안에도,
우리 예술인을 지원하는 유일한 공공재원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불안정한 재원구조로 인해
2004년, 5,273억원에서 2023년 말 626억 원으로 약 10배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지금까지 이뤘던 성과가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우리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국가 재정환경과 무관한
안정적인 재원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가 됐습니다.

저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제시된 고견들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재원 안정화를 통해 한국 문화, 한류가 지속가능한 생태계 속에서
세계인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관련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참석하신 모든분들의 지혜 속에서 재원의 안정화 제도를
마련하는 뜻깊은 토론회가 되길 기대하며,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재도약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대구북구을
국회의원 김 승 수

개회사



박 대 출 국회의원
국민의힘 경남 진주시 갑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경남 진주시 갑 박대출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공기금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해 많은 전문가분들과 현장 예술인을 모시고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의 장을 열기 위해 함께 주최해 주신 김승수 의원님을 비롯하여,
행사를 주관해 주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이번 자리에 참여해 주신 소병서 명예교수님,
김진각 교수님, 김우철 교수님, 김진 교수님, 박경미 교수님, 김성훈 안무가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문화예술은 그 자체가 주는 본연적 가치도 소중하지만,
문화예술이 촉발하는 창의성은 K-콘텐츠 산업의 중요한 밑거름이자
한 나라의 소프트파워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매우 오랜 기간 축적되어야 발현되는 속성을 가지며,
한편 임계점을 돌파하면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1973년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장기간 투자를 위한 기초 재원을 만들었습니다.

무려 50여년 전의 한 걸음, 그리고 중단없이 이어온 결과,
임계점을 돌파한 우리의 문화예술이 촉발한 창의성을 바탕으로
영화, 음악, 뮤지컬, 웹툰, 드라마 등 다양한 창작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를 위해 꾸준히 본연의 역할을 맡아왔던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 구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50여년 간 4조 3,232억원, 최근 10년으로 좁혀보면 2조 5,603억원이
예술창작, 지역문화, 문화향유, 가치확산 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여러 분야에 투입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재원 구조가 마련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답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전해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며,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또 다른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 또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경남 진주시 갑
국회의원 **박 대 출**

환영사



정 병 국 위원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최근 10여년 동안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획기적 성장을 이뤄낸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산업 위상의 발원을 좇다 보면,
그 바탕에는 기초 문화예술이 있었고, 그 위상에는 꾸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기여한 바가 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노벨문학상을 수상해 우리 기초 문화예술의 자부심이 된 한강 작가의 경우
그가 문학의 길을 걷기 시작한 청년 시절부터 지금 거장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1973년, 우리나라 연간 1인당 국민총소득이 321만원에 그치던 시절,
우리 선배들은 문화예술이 발휘하는 힘이
우리 민족의 문화적 삶을 보장한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창설하였고,
그 믿음 아래 지난 50여 년 간 약 4조 원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문화예술을 향해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세계 속에 문화강국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초 문화예술의 뿌리를 50여 년간 지탱해 온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고갈 위기를 맞았습니다. 2004년 최대 5,273억 원에 달했던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모금제도 폐지 이후 단년도 예산심의 과정에 의존하는
전입금 위주의 불안정한 재원 구조 속에서
그 규모가 2023년 말 기준 626억 원까지 축소되었고,
이로 인해 우리 예술가의 창작과 문화 인프라 조성, 지역 예술 균형발전,
국제 문화교류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위태로운 실정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제도가 폐지된 2004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뿐만 아니라,
문체부, 국회 등 여러 차원의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왔지만,
안정적 재원 대책 마련을 위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고갈은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공공지원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기초예술 생태상, 문화예술 지원의 안정성은
국가가 문화에 대해 가져야 할 의무이자 핵심적인 가치이며,
그 가치가 발현될 때 우리나라의 문화적 위상은 지속 가능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고갈 문제를 단순한 예술가에 대한 지원 문제가 아닌,
오늘날 우리 문화예술의 세계적 위상 제고, 미래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김승수 의원님과 박대출 의원님께서 공동주최하시어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김진각 교수님께서는 발제로, 김진 교수님, 김우철 교수님, 박종미 교수님,
김성훈 안무가님은 토론으로 안정화 방안의 방향과 현실적 대안,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시기 위해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안정화를 위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정 병 국**

축 사



한 동 훈 당 대표
국민의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 대표 한동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수 의원님과 박대출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주최하시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73년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우리나라의 기초예술 진흥과 국제 문화교류,
문화기반 조성과 문화예술 향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순수예술을 지원하는 공공재원으로 기능해왔습니다.
해당 기금은 우리 민간 부문의 예술인들과 경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더해져 놀라운 상승효과를 내었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는 문화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재원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모금제도가
2003년 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폐지된 이후,
재원의 구조가 정부 내부수입 위주로 전환되면서
기금의 고갈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김승수 의원님과 박대출 의원님께서
오늘 이렇게 시의적절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주신 것은

매우 뜻깊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발제와 토론으로 고견을 나눠주실 여러 전문가분들을 비롯해
이 주제에 대해 열의를 갖고 행동해주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22조를 통해 모든 국민의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문화예술진흥법을 통해서는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K-컬쳐 르네상스의 시대가 도래한 만큼,
국가는 문화예술 분야를 더욱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문화의 힘은 정말 위대합니다.
문화는 국가 경쟁력의 향상뿐 아니라, 국민의 행복도를 끌어올리고 삶의 질을
극적으로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문화예술계 전반의 지속적인 우상향 발전을 위해
많은 전문가 여러분의 제언에 세심히 귀 기울이면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뜻깊은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한 동 훈**

축 사



추 경 호 국회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주신 김승수 의원님, 박대출 의원님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게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 구조 문제에 대하여 논의해 주실
김진각 교수님, 그리고 열띤 토론에 참여해주실 김우철 교수님, 김진 교수님, 박종미 교수님,
김성훈 안무가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K-팝과 K-드라마, 그리고 다양한 전통 예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적 자부심이 된 K-콘텐츠 산업의 기록적인 발전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든든한 뒷받침이 돼왔습니다. 콘텐츠 창작의 원동력이자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는 기반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문화예술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구조적 안정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금의 양적 확대를 넘어서,
효율적인 운용과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전 재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역시 건전한 재정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기금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문화예술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예술인분들이 함께 모인 특별한 자리인 만큼,
문화예술의 진흥과 기금의 안정화를 위한 실천적인 대안이
다채롭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고견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도 집권여당으로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문화 강국이란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가도록 안정적인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하고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의원 **추 경 호**

축 사



김 상 훈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대구 서구 국회의원 김상훈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깊은 환영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 재원 구조 시사점 및 기금 안정화 제도를 마련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신 김승수·박대출 의원님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어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신 최병서 명예교수님,
발제와 열띤 토론을 진행해주실 김진각 교수님, 김우철 교수님, 김진 교수님, 박종미 교수님,
김성훈 안무가님을 비롯한 전문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973년 최초로 조성된 이후, 지난 50여 년간
우리나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기능해왔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예술 모든 활동의 첫 단계엔 기금의 재정적 지원이 있었고,
이를 통해 예술 생태계의 자생력 신장·창조 견인·예술시장 생산력 확보
등이 이루어져 지금의 문화강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재가치를 생각한다면,
기금의 안정적 관리와 지속적인 지원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이자
번영의 원동력을 생산해 내는 발전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주요재원인 모금제도 폐지(2003년 12월) 이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순수예술을 지원하는 유일 공공재원임에도 불구하고
단년도 예산심의 과정에 의존하는 정부 내부수입(전입금) 위주의
불안정한 재원구조(2024년 기준 76.8%)로 전환됐습니다.
나아가 기금은 2004년 적립금 5,273억 원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은 626억 원 수준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그간 재원 구조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어 왔지만, 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연구를 진행하셨던 전문가,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과 함께
현장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예술가님들이 참석해 주신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화'라는 화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현명한 방안들이 제시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 또한, 집권 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정책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토론회가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의원 **김 상 훈**

축 사



전 재 수 위원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반갑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전재수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김승수 위원님, 박대출 의원님,
그리고 행사를 주관해주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김진각 교수님, 토론에 참여해주신 김우철 교수님, 김진 교수님,
박종미 교수님, 그리고 현장에서 왕성히 활동하고 계시는 김성훈 안무가님께도
소중한 시간을 내주심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의 오랜 과제인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화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 한류열풍 등 오늘날 문화예술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리는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우리의 자부심을 이끄는 큰 역할을 해왔지만,
오랜 기간 불안정한 재원 구조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훌륭한 예술은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1973년 문예기금이 설치되었으나 2004년 모금제도가 폐지된 이후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마련하지 못한 채 고갈되고 있습니다.

지난 50여년의 지원을 통해 자리 잡은
우리 문화예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기금 재원의 안정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재원 안정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러 대책이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회의원 **전 재 수**

발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정적 위기와 재원 안정화 전략

김진각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정적 위기와 재원 안정화 전략

김진각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kimjg2003@sungshin.ac.kr

TABLE OF CONTENTS

01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성격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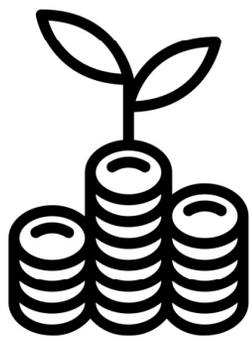
02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현황과 재정 고갈

03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정 위기 진단

04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

05 결론

문화예술진흥기금 성격과 의미



순수예술(기초예술) 지원의
‘Seed Money’

유일한 국가 단위의 **순수예술 지원 재원**

창작과 보급,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 및 발전
국제교류, 문화예술인 후생복지, 지역문화진흥 등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최종 수혜자는 **국민**

1

문화예술진흥기금 성격과 의미

문화예술진흥법
문예기금 관련 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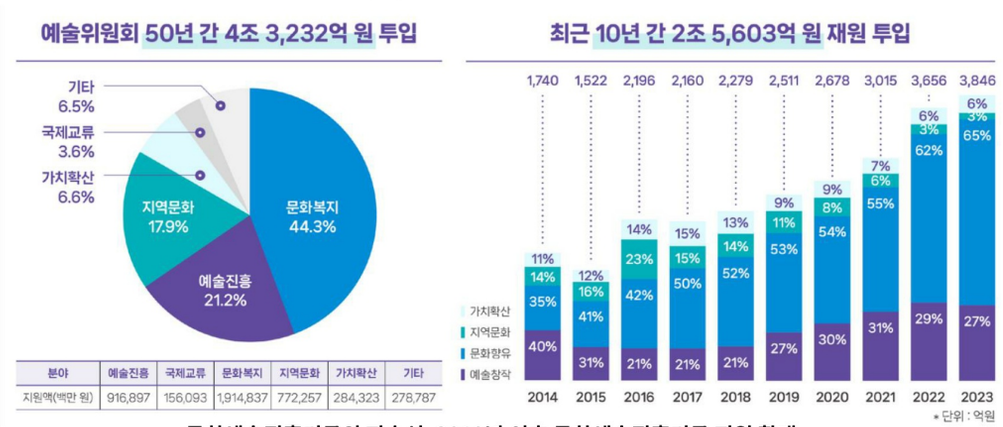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출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 · 계승 및 발전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5의2.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6.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의 출연
6의2. 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진흥에 관한 사업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9.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 · 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 · 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2

문화예술진흥기금 성격과 의미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결실(1)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속성, 2010년 이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확대

3

문화예술진흥기금 성격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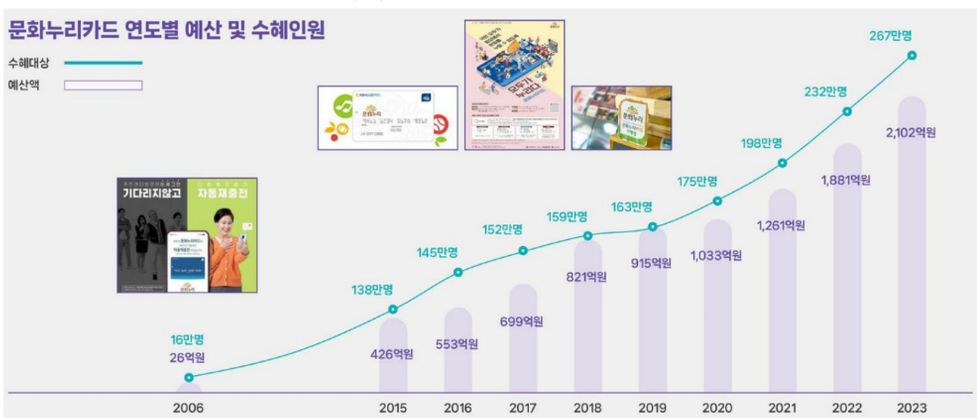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결실(1)



4

문화예술진흥기금 성격과 의미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결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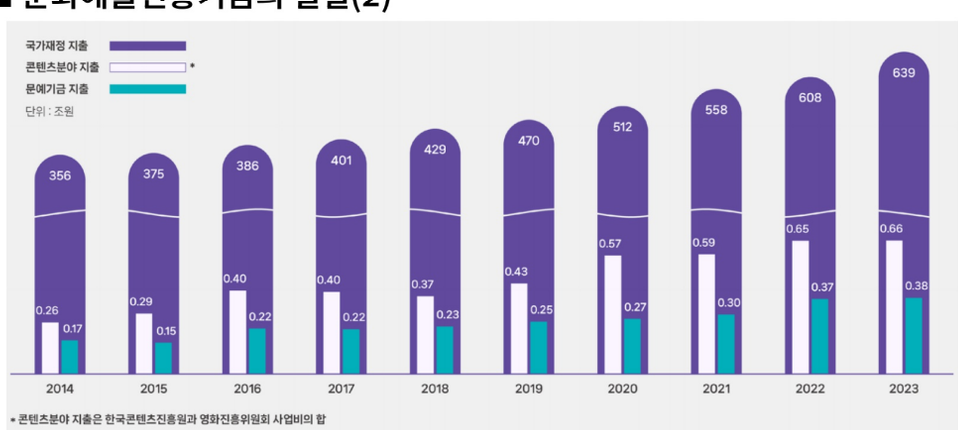


2015년부터 시행한 문화누리카드, 1630만명의 경제적 소외계층 대상 9700억원 규모 문화예술향유 지원

5

문화예술진흥기금 성격과 의미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결실(2)



문예기금 지원 확대의 필요성 : 국가재정 대비 0.3%, 콘텐츠 분야 재정지출 대비 57.9% 수준의 극복

6

문화예술진흥기금 현황과 재정 고갈

문예기금 수입 현황(단위 : 억원)

수입유형	2022년	2023년	2024년
정부 전입금	3,009	3,657	3,788
일반회계	300	300	300
복권기금	1,733	2,357	2,488
체육기금	970	1,000	1,000
자체수입	644	703	995
유형매각대	7	0.3	-
융자원금회수	139	126	152
합계	**3,799**	**4,487**	**4,935**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자료>

문예기금 사업 현황(단위 : 억원)

사업유형	2024년
예술창작	854
문화예술향유	2,751
예술가치확산	242
기타	238
합계	**4,085**

- 예술창작 : 예술창작지원, 예술인력육성
- 문화예술향유 : 문화예술향유지원, 청년문화예술패스
- 예술가치확산 : 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
- 기타 :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지역문화예술지원

7

문화예술진흥기금 현황과 재정 고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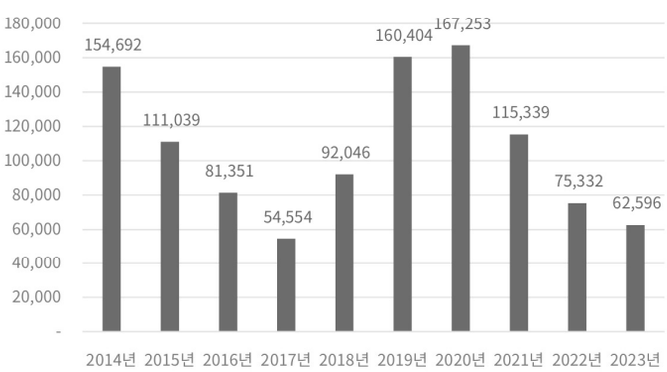
적립금 급감

2004년 5,273억원

↓

2023년 626억원

문예기금 고갈 위기



<최근 10년 내 기금 적립금 현황(단위 : 백만원)>

8

기금 조성방식 위헌 결정('03년)

- 공연, 전시장, 고적 및 사적지 입장료 6% 모금을 통한 기금 조성 방식 위헌 판결
- 연 400억 원 규모의 수입 조성 원천적 차단 결과 초래

대체 재원 발굴의 난항

- 2004년부터 복권기금 신규 전입
- 소외계층 대상 사업 투입 국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 정책의 변화와 적립금 사용의 불가피성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정위기 진단

"기금 고갈위기 원인"

기금 운용의 재정적 제약

- 2005년 예술위 출범 이후 국고 지원사업인 예술창작기반조성 및 전통예술활성화 등의 기금 사업 전환 결정
- 대체재원 마련 부재로 재정적 타격 초래

효율적 기금 운용의 방해

- 기금의 재정적 위기 속 예술창작지원 사업 규모 지속적 증가
- 2013년까지 157~175억원 수준 → 2014년 3배 가량 증가, 2024년 현재 588억원 규모

9

국가 문화예술 발전의 질적 저하

- 예술 창작의 버팀목 붕괴
- 순수예술의 기본적 생태계 조성, 예술인력 양성, 국민 문화예술향유에 치명타

국가경쟁력 하락 우려

- 문화산업 가치 하락에 따른 국가경쟁력 저하
- 기금 고갈에 따른 순수예술 퇴보는 문화콘텐츠 및 관광 산업에까지 부정적 영향, 국가 경쟁력 강화 저해 요소 작용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정위기 진단

"재원 고갈의 후폭풍"

문화예술 향유·소비 양극화의 심화

- 창작 지원의 '동맥경화'를 넘어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의 문화예술 향유 실종 우려
- 문화예술 향유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야기

예술지원 정책의 후퇴

-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의 불능에 따른 안정적 예술지원시스템 구축 난망
- 재원 불안정으로 예술지원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훼손 우려

10

기금 재원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

■ 기금 전입금의 법적 근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중략>
4. 문화 · 예술 진흥사업
5.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1

기금 재원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

■ 기금 전입금의 법적 근거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외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기금의 조성 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5조(기금의 조성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12

기금 재원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

■ 기금 전입금 수입 개요

복권기금 전입금	체육기금 · 관광기금 전입금
• 복권 및 복권기금 법 개정에 따라, 2004년부터 복권 수익금 중 매년 복권위원회 결정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위한 용도로 전입 •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지출 규모와 연동하여 편성	•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화를 위해 2016년부터 신규 전입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관광기금 재원 악화에 따라 2021년부터 관광기금 전입 중단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복권기금 전입금	105,561	122,324	164,154	173,868	235,674
체육기금 전입금	100,000	100,000	97,000	97,000	100,000
관광기금 전입금	50,000	-	-	-	-

<2019~2023년 타 기금 전입금 수입 내역(단위 : 백만원)>

13

기금 재원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

1. 복권기금 전입금의 법정배분 제도화

- **2003년 12월,** 문예기금 모금 제도 폐지 이후 대체 재원으로서 **2004년,** 복권기금 공익배분 사업 최초 편성
- 소외계층 지원을 비롯, '올해의 예술상', '대한민국국악축전' 등 문화예술 향유 확대 목적 사업 편성

→

- **2015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문화누리카드) 도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전담기관 지정)에 따라 경제적 소외계층 대상 사업에 편성 집중

→

- **2024년 현재,** 복권기금을 통해 통합문화이용권 2,397억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189억원 사업비 편성

<문화예술진흥기금 내 복권기금 전입금 편성 현황>

14

기금 재원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

1. 복권기금 전입금의 법정배분 제도화

<복권기금 법정사업 전환 기대효과>

문화예술진흥기금

현행 공익배분 사업 형태에서
법정배분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안정적 법정수익원 확보,
전입금 활용 사업군 다양화 등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효과 도출 가능

복권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전출 규모 법정한도 설정 가능

- **(현황)** 통합문화이용권(2,397억 원)
  '24년 복권기금 **전체 사업 중 3위 규모**
- **(추세)**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확대 추세에 따라 **2027년 사업비**
  3,000억원 돌파 예상

15

기금 재원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

1. 복권기금 전입금의 법정배분 제도화

<복권기금 법정사업 전환 시 검토 요소>

필요 배분규모

2024년 복권기금 전입금 규모
(2,488억 원) 고려 시
법정배분률 8.5%p 상향 필요

이 경우 법정 전입금은 2,526억 원 추정

사업구조 개편 필요성

법정배분 시 복권기금 **추가 전입 불가로**
인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조정 필요

* 통합문화이용권 연 1만원 증액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약사항,
임기 내 매년 1만원씩 증액 시
2027년 2,938억원 도달 예상,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포함 시 3,000억원 상회 추정
→ 사업의 전반적 구조 재조정 불가피

16

기금 재원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

1. 복권기금 전입금의 법정배분 제도화

<복권기금 법정사업 전환 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개편 방안>

A. 문화예술분야로 이용권 지원 한정

<분야별 지출실적>

분류	'23년 집행	구성비
문화예술	1,842억원	73.2%
체육	142억원	5.7%
관광	531억원	21.1%

B. 지원대상 기초수급대상자로 한정

<지원대상 구성>

분류	'23년 인원	지원액
기초수급 대상자	190만명	1,529억원
차상위계층	100만명	819억원

C. 바우처형 지원사업 중복 혜택 고려 연령대별 지원대상 조정

청년문화예술패스, 서울청년문화패스 등 혜택 10대와 기초연금 수혜 60대 이상 대상으로 조정 검토

17

기금 재원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

1. 복권기금 전입금의 법정배분 제도화

<복권기금 법정배분 사업 전환 국내외 사례>

국내 국가유산보호기금(2011년 전환)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에 '국가유산보호기금법'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추가

배분 금액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35로 상향

해외 영국예술위원회(ACE) 예산 편성

영국 복권판매 수익은 국립복권판매기금으로 이관 후 **예술**, 스포츠, 국가유산, 자선·건강·교육·환경 분야로 법정 배분*

문화예술	스포츠	국가유산	자선·건강 교육·환경
20%	20%	20%	60%

* 출처 : 이세진 · 고준혁, "복권기금 운용과 복권사업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12), p.38.

18

기금 재원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

2. 일반회계 전입금 확충 및 유사 예술지원기관 통합 모색

<일반회계 전입금 확충 검토>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에 근거한 정부 출연금(일반회계)의 확충 필요성

- 순수예술 분야 핵심 재원으로서의 문예기금 안정화를 위한 일반회계의 역할 증대
- 2022년 이후 연 300억 원 규모의 일반회계 지원 확대를 통한 문예기금 재원 안정화 기여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일반회계 전입금	500억원	500억원	210억원	204억원	300억원	300억원	300억원

19

기금 재원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

2. 일반회계 전입금 확충 및 유사 예술지원기관 통합 모색

<유사 예술기관 통합 모색>

순수예술 분야 지원 국가기관의 난립과 이로 인한 유사•중복 사업의 폐해

- 문예기금 외 정부 일반회계를 통한 예술 지원기관 사업 지원의 장단점 면밀 분석 필요
- 순수예술 지원은 문예기금 재정을 통한 집행 대원칙 수립 필요
- 이를 위해 문예기금 운용 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일반회계 사업 중심의 A 공공기관 등 유사 예술지원기관 간의 발전적 통합 적극 모색

20

기금 재원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

3. 문화예술세(가칭) 도입 검토

■ 간접세 형태의 문화예술세(가칭) 도입

· 목적세 성격의 문화예술세 신설 검토
  - 문화예술분야 공공 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세
  -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로 징수되는 조세 재원 중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입
· 현행 교육세를 문화예술세와 교육세로 확대 개편 방안

□ 검토와 한계

· **(검토)** 문화예술진흥 정책적 목적에 해당되고 일반 과세제도 체계 내에서의 재정 조달과 공공 재원의 지속적 조성 가능
· **(한계)** 현행 세법상의 복잡한 과세 체계 가중과 특별 목적세 신설 금지 정책 기조에 배치

21

결론

‘문예기금의 위기’ ‘문화예술의 위기’ ‘K컬처의 위기’가 되지 않으려면

- 순수예술 기반의 불안전성 가속화 우려
- K컬처 확산의 마이너스 요인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

- 긴축재정 기조 속 문예기금 재정 안정화 원칙 확립
- 일반회계 지원 확충 필요성 검토
- 유사 예술지원기관 통합 적극적 모색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 위기 해소를 위한 실효적 정책방안 강구

- 복권기금 전입금의 법정배분 제도화
- 문화예술세(가칭) 신설 검토

22

감사합니다

김진각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kimjg2003@sungshin.ac.kr

* 무단전재 금지

토론

좌 장

최병서(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토 론

김　진(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우철(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박종미(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훈(김성훈 댄스 프로젝트 대표, 안무가)

문예기금의 재정적 위기와 재원안정화 전략

김 진(동덕여자대학교)

□ 요약

○ 문예기금의 성격과 의미, 현황과 재정 고갈, 재정위기 진단, 재원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에 대해 논의함

□ 평가

○ 결론에서 위기, 확고한 의지, 실효적 방안 등을 제기하였으나 검토수준에 머무름

○ 대부분의 논의에서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향후 외부 연구용역이 필수적임

□ 상세검토(부분적)

○ 문예기금의 성격과 의미가 기금존치평가에서 표준화되어 있는 사항과 비교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재원의 속성에 맞는 재정사업의 적합도가 고찰되어야 함

○ 복권기금과 체육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에 해당하는 재정사업의 성과평가가 분석되어야 함

○ 문예기금 재정사업의 재원 확충방안으로 일반회계 전입 증가, 복권기금 전입 배분율 확정, 목적세 설치 등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그동안 제기되었던 사항들과 별 차이가 없음

○ 기금평가나 성과평가에서 요구되었던 문화예술분야, 문체부 및 국가유산청 재정 등에 대한 포괄적 분석 및 중장기 재정 소요분석 등이 결여되어 있음

□ 제시된 방향성에 대한 검토(부분적)

○ 복권기금 전입금의 법정배분 제도화 관련 – 제기된 사례가 다소 부적합하고 복권기금 배분이 다부처 사안이기 때문에 실행하기 어려움

○ 일반회계 전입금 확충 및 유사 예술지원기관 통합 모색 관련 – 단순히 예술위와의 통합을 제시하는 것 이상의 구체적 실행방안이 필요하고, 문체부 산하 모든 기관과의 기능분석, 조직분석, 재정분석이 요구됨

○ (가칭)문화예술세 도입 검토 관련 – 단순 검토에 머무르는 의견 제시는 지속적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 실행방안이 필요하고, 재정당국의 교육세 및 교육재정 관련 정책방향성의 설정에 문체부의 의견제시가 가능하지 않음

○ 문체부 및 국가유산청 재정의 속성에 대한 분석, 중앙-지방 정부간 재정에 대한 분석, 정부-민간-산업에 걸친 문화예술 부가가치 Value-Chain에 근거한 포괄적 분석 등에 기반하여 문예기금 재원확보 방안이 도출될 수도 있음

문예기금 재정위기 원인과 대응

김우철(서울시립대학교)

1. 문예기금 재정운영 위기와 원인

□ 예산 절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소한 과정을 통해 자금을 조성하고 집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기금 설립의 중요한 취지임

○ 기금 특유의 신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기 위서는 안정적인 재원의 뒷받침이 필수적임

○ 자체재원 없이, 타 기금이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운영되는 기금의 경우, 정상적인 기금의 역할을 수행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사실상 다른 일반회계 사업과 큰 차이 없이 운영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 문예기금은 그 동안 만성적인 자금 부족으로 기금 고유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빈약한 재정 상태를 넘어 적립금이 아예 바닥을 드러내며 사실상 존폐 위기나 다름없는 비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

○ 문예기금은 그간 외형만 기금의 형태를 띠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일반적인 재정사업과 큰 차이 없이 운영돼 왔는데, 이는 사실 기금 설립 취지에서 크게 벗어난 것임

○ 2004년 5273억원 수준이던 적립금이 2023년 626억원으로 급감하면서, 문예기금은 이제 외형적으로도 기금으로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역할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평가됨

□ 재정위기 근본 원인

○ 문예기금 재정위기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연속 발생한 대규모 세입결손(약 86조원)과 그로 인한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직접적 요인으로 들겠으나, 이는 표면적인 요인일 뿐임

- 2023년 세입결손: 56.4조원, 2024년 세입결손: 29.6조원

○ 재정위기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문예기금이 안정적인 자체재원 없이 매년 재정 상황에 따라 그 때 그 때 규모가 결정되는 외부 전입금에 의존해 운영되어 온 방식에 있음

○ 즉, 그동안 문화예술 부문에 대한 공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 부족으로, 재정자원 배분 우선순위에서 문예기금 사업이 높은 순위에 들지 못한 것이 현 재정위기의 본질이며, 최근의 중앙정부 재정여력 소진 문제는 내재적 위기를 가시화하고 가속화한 촉매제 역할을 한 것뿐임

- 아래 표: 문화는 체육, 관광과 더불어 2024년과 2025년 예산편성에서 평균 이하 증가율 기록, 재원배분이 지속적으로 축소된 분야에 해당

< 2024~25년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 >

		'25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3.2%)	
		증가율 ≥ 3.2%	증가율 < 3.2%
'24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2.8%)	증가율 ≥2.8%	▪ 보건·복지·고용 (7.5%, 4.8%) ▪ 국방 (4.5%, 3.6%) ▪ 외교·통일 (19.5%, 3.7%)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4.9%, 1.1%) ▪ SOC (4.6%, -3.6%) ▪ 농림·수산·식품 (4.1%, 1.9%) ▪ 공공질서·안전 (6.1%, 2.6%)
	증가율 <2.8%	▪ 교육 (-6.9%, 3.5%) ▪ 환경 (2.5%, 4.0%) ▪ R&D (-16.6%,11.8%)	▪ 문화·체육·관광 (1.5%, 1.3%) ▪ 일반·지방행정 (-0.8%, 0.6%)

2. 위기 대응방안

□ 대응방안 마련의 핵심 요건

○ 일시적 재원 조치보다는 **근본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가장 중요

○ 단기적인 처방은 문제를 연장할 뿐이기에, **항구적**인 재원 대책 필요

○ 재정당국의 고려나 재량에 따른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법제적** 틀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대응전략: 공개화 적극 전략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 문예기금 존폐와 사활을 건 배수진 전략이 필요

○ 근본적인 안정적 재원대책 결여한 문예기금 제도란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점 강조해야 할 것

○ **국가재정 자원 배분 전략에서 문예부문이 차지하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가리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의 장이 필요함**

- **대한민국은 문화예술 보금과 창달을 중시하는 국가인지 아닌지 묻는 과정!**

○ 문화예술 부문의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 가치를 공개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문예 부문에 대한 재원배분 우선순위를 제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임

○ 이러한 과정에 의하지 않고는 근본적이고 항구적이며, 법제적 기반의 안정적 재원대책은 사실상 불가능함

□ 기금수입 기반 확보를 위한 예비적 방안

○ 복권기금 전입금의 법정배분 제도화

- 영국 사례 고려할 때. **복권판매 수익의 20% 이상을 문예부문에 배분**할 것을 법제화할 필요

○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이라는 문예기금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 인정 및 부여

- 취약계층 문예 향유 기회 제공도 중요하지만, 문예기금의 고유의 역할에 대한 비중을 지금보다 훨씬 확대하는 것이 시급함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주요 대상이 청소년 계층이라는 점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기금수입 기반 확보 근본적인 방안

○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결국 독립 재원을 확보하는 것에 있음

○ 다만, 현재 정치적 상황에서 문예기금 재원 마련을 위한 별도의 증세 또는 부담금 신설은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이지 않음

○ 따라서 적어도 당분간은 잉여재원이 존재하는 교육재정교부금이나 교육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문화예술 부문에 배분하도록 하는 재원공유 방안의 법제화가 더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높아 보임

○ 향후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여, 세입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논의될 때, 문예기금 주요 재원을 주세와 담배세, 카지노세(개별소비세)에 대한 증세를 통해 조달하는 방안이 국제적 규범에 비추어 타당한 접근이라 판단됨

- 현재 우리나라 주세 수입은 음주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에 현저히 미달하는 수준에 있어, 주세가 교정 과세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만간 세부담의 적절한 인상이 필요한 시점에 있음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정안정화의 요건-의지

박종미(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후 20년간 해결되지 못한 기금 재정안정화에 대한 토론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와 문화예술에 대한 애정과 관심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귀한 발제를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문예기금의 재정안정화의 제일 중요한 요건은 의지라고 먼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문예기금 재정안정화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은 위헌적이거나 불가능 한 것이 아닙니다. 발제해 주신 교수님의 방법들과 제가 이 시간 토론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방법들 모두 재정화 안정화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국회와 관계부처 책임자의 공감과 의지가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열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발제해 주신 내용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발제해 주신 내용 대부분은 저도 적극 동감하고 있지만 해결책으로 제시해 주신 것 중 복권기금 전입금의 법정배분 제도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정배분으로 매년 공고히 문예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만 기금 35%로 제한된 법정배분에서 기 법정배분권자인 지자체와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될 것인지 가능성을 떠나서 복권기금의 본질상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복권기금은 기금조성에 기여한 복권구입자인 국민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되어야 하고 특히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은 사람,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목적에 맞습니다. 따라서 복권기금은 법정배분보다는 공익사업에 적합한 기관에 배분되는 것이 적합하고 실제로 복권기금의 배분율은 공익사업이 법정배분의 2배 이상이고 배분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법정배분에서 문예기금보다 많은 금액을 배분받고 있는 기관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예기금이 공익사업의 목적과 범위를 넓혀서 복권기금에서의 배분금액을 증액시키는 방법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문예기금의 용도가 20년전 대비 더 확대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공익목적 사업 확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정부일반회계출연금의 확대에 대하여는 전적을 동의하고 이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예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조성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관리하고 있지만 문예기금의 본질적 근거는 문화국가원리와 예술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천명한 헌법과 “국가와 지자체는 문화진흥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선언한 문화기본법(제13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출연금의 확대의 한 측면에서 2003년 문예기금이 위헌결정을 통해 모금제도가 폐지되면서 각 개별법으로 분산된 기금들은 어는 정도 문예기금으로부터 반사적 수혜를 받은 기금이라는 측면에서 문예기금으로 일정부분 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일부 기금들은 이미 전입금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은 기금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일반회계 출연금과관련해서는 요 근래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도 충분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문화와 예술에 투자하고 지원했던 결실들이 K-culture가 되었고 노벨문학상이 되어서 다시 되돌아오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지속적인 정부출연금의 확대는 출연 이상의 국익이 되어 되돌아오고 그 안에서 국민은 문화 예술로 인한 자긍심과 충족감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안해 주신 기금 안정화 방안이 유사예술지원기관의 통합이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기관통합은 가장 확실하지만 최종적인 방법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각 기관의 유사하지만 다른 영역과 활동이 전개되고 있고 기관이 1+1의 형태로 통합되는 경우 재정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인지도 미지수입니다. 통상 작은 돌 두 개는 변화하는 사회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어디에서든 정착하기 쉬우나 큰 돌하나는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통합의 방법으로 기금의 재정안정성과 중복정책의 지출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기금의 통합을 고려해볼만 하지만 기금 통합 역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기 때문에 기금통합을 시도하고자 한다면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재정안정화와 관련해서 부담금 입법의 가능성이 있다면 문화창작물과 소비자 사이에 유통을 담당하며 막대한 사업이익을 누리고 있는 OTT사업자, 미술품, 골동품 중개업자, 각종 문화창작물 플랫폼사업자들에 대한 부담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부담금은 특정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밀접한 관련 있는 자들에게 법이 정한 부과원칙에 따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담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정한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형식적 절차와 실질적 적법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제도를 부활 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금 안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토론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의견과 제안을 제시하였지만 지극히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한계를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안된 내용들은 입법자나 책임자가 실현하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현행법에서 불가능한 내용은 없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20여년에 걸쳐 계속 되어온 문예기금의 재정안정화 대책이 조속히 현실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칩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화

김성훈(김성훈 댄스프로젝트 대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예술가와 예술 단체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재원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기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예술 활동의 지속성과 다양성, 그리고 창의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금이 불안정해지면 예술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려 사항은 있습니다. 저는 현재 컨포러리댄스 무용단 대표이자 안무가로서 순수무용공연 현장에서 체감한 창작지원과 안정화에 대한 의견으로 기금 불안정의 우려와 그에 따른 예술위원회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술 활동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기금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창작지원 축소로 이어져 예술가들은 창작 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순수예술 생태계에서 예술 활동은 종종 경제적 여건에 좌우되기 때문에, 재정 지원이 줄어들면 예술가들은 생계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작품의 질과 깊이가 저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 순수무용 활동 창작자들은 겸업으로 생계와 학업, 공연활동을 이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격은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의 다양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재원이 불안정하게 유지되면 소수자나 비주류 예술 형식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적 다양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대중적이지 않더라도 중요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술 작품들이 사라질 위험을 초래합니다. 특히 실험적이거나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작품들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국민 예술 향유와 문화 저변 확대에도 영향을 줄 것 입니다.

세 번째는 신진 예술가와 소규모 단체의 활동 기회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신진 예술가들과 소규모 예술 단체들은 보통 기금에 많이 의존합니다. 만약 지원사업이 축소되면 이들에게 중요한 첫 기회가 사라질 수 있으며, 그들이 예술계에 진입할 기회가 제한될 것입니다. 즉, 장기적으로 예술계의 세대교체와 새로운 아이디어의 유입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신진 예술가들에게 첫 창작 작품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원금을 통해 그들이 사회에 발을 디딜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예술계의 미래를 풍성하게 만들고, 더 다양한 목소리와 창의성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지원은 창작의 첫 단계에서 필수적인 자신감과 자원을 제공하며, 신진 예술가들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가 약화할 수 있습니다.

기금 축소는 예술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술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사회적 변화와 성찰을 이끄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줄어들

게 되면 예술이 지닌 공익적, 사회적 가치는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며 나아가 이는 예술이 사회 속에 존립해야할 근거를 지니는데 어려움을 갖게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역 문화의 활성화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기금은 지역 예술과 문화의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도시 외의 지역 예술 단체나 문화 행사들은 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금 축소는 지역 예술 생태계를 위축시켜, 특정 지역에 문화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술 교육과 예술 단체들이 서울지역에 과밀집되어 있는 현 상태에서 국민의 통합적 문화 교양 증진을 위해 소외된 지역과 계층의 지속적 예술 기회 분배와 유지가 필요 할 것입니다.

위 다섯 가지 우려사항에 따른 기금 안정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예술위의 역할 및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술 생태계의 균형 유지와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술위는 다양한 예술 분야에 걸쳐 균형 있는 지원을 통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지원이 필요한 예술가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정 분야나 예술가들에게만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예술계 전반의 건강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합니다. 지원이 예술가들에게 분배되어 전체적인 문화예술 생태계가 활성화됩니다. 이는 창작과 소비의 순환을 촉진하고, 다양한 예술 장르와 형식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 예술가와 사회 간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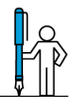
예술위는 예술가와 사회를 잇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예술가들의 작품이 단지 창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그 가치를 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예술위는 기금 배분뿐만 아니라, 예술과 대중의 연결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정된 재정 지원은 예술가들의 창의적 사고와 실험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는 독창적인 예술 작품이 탄생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장기적 지원 전략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정적 안정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지원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전략이 필요합니다. (장기 지원 단체 선정과 다년지원) 이를 위해 예술위는 정부와 협력하여 예산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민간 후원 유치와 같은 새로운 재원 마련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불안정성은 예술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안정화하기 위한 예술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문화예술기금은 예술가들에게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여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우며 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예술가가 실험적인 작품이나 프로젝트에 도전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예술가들은 보다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으며 예술가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기회가 아닌 국민의 문화적 향유 나아가 국가적 예술의 지평과 역할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로 작용할 것입니다.

Memo



Memo

